

도지사 후보들 법적 공방 예고... 막판까지 네거티브 집중

방송 3시 '경기도지사 후보 4인 초청 TV 토론회'

강용석·김은혜, 취업 청탁·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김동연 후보 비난
김동연 "불법 청탁한 적 없다"... 명예훼손 등 강력 법적 대응 시사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두 번째 TV토론회에서도 막판까지 네거티브에만 주력하는 모습이였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황순식 정의당,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는 23일 서울 마포구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한층 더 격한 공방전을 벌였다.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전은 강용석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던진 발언으로 시작됐다. 강 후보는 김 후보에게 "A라는 여자를 아느냐.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총장 시절 A와 해외출장을 몇 번 다녀왔는지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하이에 같이 다녀온 걸로 나오는데 이런 사진 찍을 때 비서랑도 같이 찍느냐"며 "해외여행을 같이 간 것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우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A가 2018년에는 기재부 연구원으로 활동한 흔적이 있다. 기재부를 그만두고선 김 후보가 만든 시민단체로 직을 옮겼다가 김동연 후보는 성공한 청탁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재부는 계약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 엄격한 규정에 따라 채용한다. 그 절차에 따라 응시하고 합격한 것 뿐"이라며 "채용과정은 인사과 소관으로 더 이상의 자세

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어디서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강력히 항의한다"며 "토론 이후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후보들은 1기 신도시를 두고 지난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 김동연 후보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이리나 도민들이 신뢰를 못한다"며 "경제부총리 때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도지사 공약에서는 공공주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니 공공이 빠지고 신속한이라는 말을 넣으며 민간이라는 뜻을 의미했다"며 "진짜 1기 신도시는 공공이나 민간이냐"라며 꼬아붙였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민 의견에 따르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은 각각 장점이 있다"며 "민간의 재산권에 도움이 되고 공공은 신속하게 된다. 특별법 통과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렸다"고 반격했다.

김은혜 후보는 "그 많은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했느냐"라며 "과천·분당·광명·하남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김동연 부총리였다. 조정대상지역 광명 구리 안양 광교 등 후임자 잘못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황순식 정의당,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는 23일 서울 마포구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한층 더 격한 공방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라 맞히기 전에 설명하고 사과드리는 게 맞다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은혜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보도한 특정 기업 전 임원들의 김동연 후보의 거액 후원금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은혜 후보는 "토론 직전 보도를 봤는데 지난해 10월 1000만 원의 거액 후원금을 낸 인물이 조폭 출신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대장동 김만배의 100억 원이 이 인물 회사로 가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날 1000만 원씩 후

원금 2000만 원이 입금됐다"며 "대장동 주민의 피눈물 서린 돈이 단일화 대가로 간 것 아닌지와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개탄스럽다"며 "대선 출마하며 후원금만으로 했고 내신 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작년 10월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와 연대는 금년 2월이고 그때 처음 만났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은혜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공세도 이어졌다. 김동연 후보는 "KT 전무 시절, 시댁의 부탁으로 불법 청탁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은혜 후보

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떠한 불법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 역시 "김 후보의 남편이 소유한 한 건물이 158억 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4분의 1 소유이지만 평당 공사지가만 2억1000만 원이다. 토지 346평이면 땅값만 1800억 원인데 신고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검증은 이중, 삼중으로 한다"며 "작은 것을 잠깐 눈속임하겠다고 한 것이면 벌을 받겠다"고 일축했다. 김혜진·하수빈 기자

민주당 도당, 강용석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강, TV토론회서 근거 없는 의혹 발언
민주당, 화면캡처 등 증거물 3건 제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발언을 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당은 이날 "강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특정 직원 채용에 관여했다' 등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장과 TV토론회 발언 내용, 화면 캡처 사진 등 증거물 3건을 수원지법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도당은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한 점 등으로 볼 때 강 후보의 행위가 중대한 사회 위해 범죄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발언을 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한다고 보고 소환 조사를 통해 엄단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도당이 고발한 강 후보의 허위 발언은 ▲김 후보가 특정 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우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특정직원의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에 김 후보의 부정청탁 의혹이 있다 등 세 가지다.

도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마치 김 후보가 아주대총장 시절 특정 여성 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발인의 공표 내용과는 달리 김 후보가 아주대 총장 당시 해당 직원과 해외여행을 갔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식 해외출장"에 수십 명 또는 십 수 명의 직원 중 한명으로 해당 직원과 동행한 사실이 존재할 뿐이라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 차원에서 강경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경기 군포시 가야주공5단지 아파트를 방문, 성일중 정책위의장(왼쪽)과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와 함께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지도부, 1기 신도시 군포 뚫다 "특별법 제정 차질 없는 이행" 약속

금정역 일대 재개발 추진 현장 점검
여당 후보론 앞세워 지역 표심 공약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산본을 비롯해 분당·일산·평촌·중동 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경기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지역 표심 공략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준석 당 대표와 성일중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현승 의원은 24일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 및 당 소속 후보들과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가야주공 5단지를 찾았다.

이들은 재건축추진위원장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비좁은 지하주차장 등을 둘러보고, 수돗물 노후 배관,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시공철학이 달라져서 그 간극을 반영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며 "특히 구조안전성 문제를 넘어서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를 안전진단에 반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원도심 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이동해 빌라촌을 걸으며 현장을 둘러봤다.

재개발 조합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등에게 "이쪽은 구도심이라 골목도 상당히 좁고 주차도 어려워 반드시 재개발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살기 좋게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달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를 내보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도 완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빈 기자

김동연, 정치개혁 의지 천명... "민주당 변화 씨앗 될 것"

"기득권 된 黨 외면 말라" 국민께 호소
도민 삶 개선 위한 타당 공약도 수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기득권이 된 민주당에 대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 당의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되겠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김동연 후보는 2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을 만나 보면서 우리 민주당을 향한 큰 실망감과 고개를 숙이게 됐다"며 "우리 민주당에 큰 변화와 빠른

가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오만한 민주당, 기득권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려 한다"며 "다만 종자가 될 곡식은 남겨놓는다는 말처럼 회초리를 들고 꾸짖을지언정 외면하거나 포기하진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경기도가 발전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보나 보수,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겠느냐"며 "어느 당, 어느 후보의 정책이든 도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저의 공약처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부터 치유와 화합,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승자 독식과 진영논리,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통합과 협치의 원칙에 따른 '경기도형 정치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선 "경제부총리를 지낸 재정 전문가로서 여러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손실보상 등 민생 대책이 다급하다"며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혜진 기자